불교문화 공간 '쿠무다', 상량식 봉행

혁신적 문화포교 패러다임 이끌어

지하2층 지상8층 규모 문화교류 및 시민공간 뛰어난 바다조망 눈길



부산 송정에 건립중인 '쿠무다 복합 문화공간 명상센터'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바다가 보이는 부산 송정에 불교문화 포교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보여줄 공간 '쿠무다 복합문화공간 명상센터'가 건립된다. 하얀연꽃이란 뜻을 가진 쿠무다는 카페와 갤러리를 운영하며 전시 및 다채로운 공연을 보여주고 새로운 포교방향을 제시한 곳으로 평가받는다.

문화예술 사단법인 쿠무다(대표 주석)는 5월 16일 부산 송정해수욕장 앞 쿠무다 신축건물에서 복합문화공간 '명상문화센터 상량식'을 봉행했다.

법회는 △삼귀의 △반야심경 △환영사 △경과보고 △인사말 △치사 △격려사 △축사 △축가 △내빈소개 △상량의식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상량문은 국가무형문화재 제48호 단청장 보유자이자 통도사 사명암 감원 동원 스님이 직접 써 축하했다.

쿠무다는 2013년 12월 부산 송정 해수욕장 앞에 새롭게 문을 열었다. 개원 당시 북카페를 운영하고 정기음악공연 및 전시 등을 여는 파격적인 행보로 주목을 받았다.

쿠무다의 가장 큰 역할은 불교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고 새로운 포교문화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불교전통문화와 현대 문화를 접목하는 시도는 그 자체만으로도 도전이자 파격이었고 전통 사찰에 쉼터와 북카페가 들어 선 계기가 됐다.

쿠무다는 무명 예술인을 위한 무료갤러리 등 다양한 문화 행사를 이끌다 좁은 공간 제약을 극복하고자 불사를 추진했다. 2017년 1월 현 공사 부지를 매입했으며 2018년 11월 건축허가가 완료 됐다.

새롭게 불사 중인 쿠무다는 해운대구 송정동에 위치하며, 지하 2층, 지상 8층의 대지면적 568.5㎡(172평), 연면적 2,838.98㎡(860평) 규모로 총 100억원의 공사비가 소요 된다.



문화예술 사단법인 쿠무다는 5월 16일 부산 송정해수욕장 앞 쿠무다 신축건물에서 복합문화공간 '명상문화센터 상량식'을 봉행했다.

새롭게 거듭날 복합문화공간 명상문화센터 쿠무다에는 공연장과 명상센터, 북카페 및 문화예술 교류 공간, 인터넷 방송국, 바다 법당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각 공간은 세련미를 더한 불교문화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완공은 올해 10월이다.

문화예술법인 쿠무다 대표 주석 스님은 "순간 순간 마다 시절 인연이 되어 큰 도움을 주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한다"며 "응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의 말씀 하나 하나가 그 어떤 물질적 후원보다 더 큰 힘이 되었다. 새로운 시작을 잘 출발 할 수 있도록 격려와 응원을 아끼지 않는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고 인사했다.

한편, 상량식에는 통도사 감원 동원 스님, 안국선원 선원장 수불 스님, 조계종부산연합회장 원허 스님, 부산불교연합회 사무총장 정산 스님, 전법도량 의장 만초 스님, 비구니 화엄회 회장 상화 스님,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혜도 스님, 동련 이사장 신공 스님을 비롯해 김선조 부산시 기획조정실장, 서병수 국회의원, 서범수 국회의원, 홍순헌 해운대구청장, 불자배우 견미리, 집시바이올리니스트 콘(KoN) 등 200여 명이 동참했다.

구암사 조사 및 백파 스님 추모다례재

5월 16일 구암사 부도전서 봉행

순창 구암사(주지 지공)가 역대조사 다례재 및 백파긍선 대선사 168주기 추모 다례재를 봉행했다.

5월 16일 구암사 대웅전과 부도전에서 봉행된 이날 추모다례재에는 구암사 주지 지공 스님을 비롯해 선운사 한주 재곤 스님, 법현 스님, 내장사 한주 대우 스님, 고창사회복지관장 대원 스님, 내장사 주지 지태 스님, 지선 스님 등 30여 스님들과 불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다례재에 동참한 대중들은 역대조사 스님들의 가르침을 되새기며 코로나 사태의 조속한 종식과 세계 평화를 기원했다.

구암사 주지 지공 스님은 어려운 시기에 다례재에 참석한 스님들과 감사인사를 전하며 "역대조사스님들의 귀중한 가르침을 받들고 쉼 없이 정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참석한 대중들은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발열체크와 마스크 착용 등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하면서 역대조사스님들의 가르침을 되새겼다.

참석한 대중들은 발원문을 통해 "불교도들은 나라의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호국의 깃발아래 전법도생의 길을 걸어왔다" 며 "역대조사스님들의 법등을 높이 들고 그 실천수행에 앞장서 가는 곳마다 평화와 행복의 법음이 울리도록 정진하겠다"고 다짐했다.

백제 무왕 37년(서기 636년) 승제선사에 의해 창건되고 1392년 각운선사가 중창한 구암사는 설파상언, 백파긍선 등 역대 대종사들이 주석하며 법을 펼친 사찰로 구한말에는 설유스님, 영호당 박한영 대종사가 공부하고 제자들을 길러 일대 불가 안팎에 큰 영향을 미쳤다.

중요 문화재로는 월인석보(보물 제745-10호)가 소장돼 있고, 전라북도 기념물 121호로 지정된 은행나무(수령 630년 추정)가 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순천 구암사는 5월 16일 역대조사 및 백파긍선 대선사 추모 다례재를 봉행했다.

김해 동림선원 개원 2주년 기념법회 개최

5월 16일 법회에 100여 명 참석

불교문화와 신행을 중심으로 새로운 포교 문화를 이끌고 있는 김해 동림선원이 개원 2주년을 맞았다.

동림선원(주지 신공)은 5월 16일 경내 법당에서 '동림선원 개원 2주년 기념법회'를 개최했다.

기념법회에는 조계종 고시위원장 지안 스님, 주지 신공 스님을 비롯해 사부대중 100여명이 동참했다. 주지 신공 스님은 지역사회의 모범이 되는 전법도량으로 함께 만들고 나아가자"고 당부했다.


동림선원은 5월 16일 경내 법당에서 '동림선원 개원 2주년 기념법회'를 개최했다.

한편, 동림선원은 개원 2주년을 맞아 5월 23일부터 6월 23일까지 특별전시 '토림의 향로'를 은암갤러리에서 연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부산 남포동에 우뚝 선 장엄탑

오랜만에 활기가 찬 부산 대표 번화가 남포동 한 가운데 부처님오심을 찬탄하는 장엄탑이 불을 밝혔다. 여전히 마스크를 껴야 했지만 거리로 나온 시민들은 환하게 불을 밝힌 연등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부산중구불교연합회(회장 종호)가 5월17일 광복로 시티스폿에서 '2020 광복로연등문화제 개막 점등식'을 봉행했다. 남포동 일대를 가로지르는 중심지 시티스폿에 부처님오심을 찬탄하는 장엄탑이 우뚝 섰고 주변 가로수 길을 따라 오색찬란한 연등이 환하게 불을 밝혔다. 아이들과 함께 한 가족들은 전래동화를 담은 피노키오 장엄등 앞에서 사진을 찍으며 즐거워 하는 모습들이 눈에 띄는 등 장엄탑을 구경나온 시민들에게 큰 즐거움을 선사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정읍불교대학 7기 입학식 봉행

내장사서 정읍지역 불자들의 수행과 전법을 위해 설립한 정읍불교대학 (학장 지태, 내장사 주지))이 7기 입학식을 봉행했다.〈사진 오른쪽〉

5월 14일 내장사 정읍 포교원인 영은사에서 열린 이날 입학식은 내장사 주지 지태 스님, 상이암 주지 대선 스님, 성불암 주지 상우 스님, 보림사 주지 석우 스님, 내장사 재무국장 구암 스님을 비롯한 스님들과 입학생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정읍 불교대학은 그동안 코로나 사태로 인해 입학을 미뤄왔으나 최근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함에 따라 참석자들에 대한 발열체크에 이어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로 진행됐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